

씨어스

국내를 평정한 이상, 이제 다음은 세계무대다.

-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00억원 CB 발행 결정
- 기업에 우호적인 발행조건에도 미래 성장성을 선택한 투자자들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00억원 CB 발행 결정

발행조건: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인 무이자 구조. 전환가격은 기준주가 대비 20% 할증된 30,586원이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리픽싱)은 없음. 발행사 또는 지정 제3자가 최대 50%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설정.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360만 (기존 발행주식수의 8.57%). 납입일 10월 21일. 만기 5년.

자금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 700억원, 운영자금 30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기업에 우호적인 발행조건에도 미래 성장성을 선택한 투자자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주요 활용 용도는 해외사업 확대로 550억원은 미국 사업에, 150억원은 UAE 사업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임. 미국에서는 모비케어(외래환자용 부정맥 선별검사 서비스) 사업을 위한 독립진단검사기관(IDTF) 지분 인수와 IDTF 대상 AI 솔루션 운영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추진될 전망. 미국에서는 IDTF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미국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음. UAE에서는 현지 진단서비스 운영기반과 부정맥 센터를 구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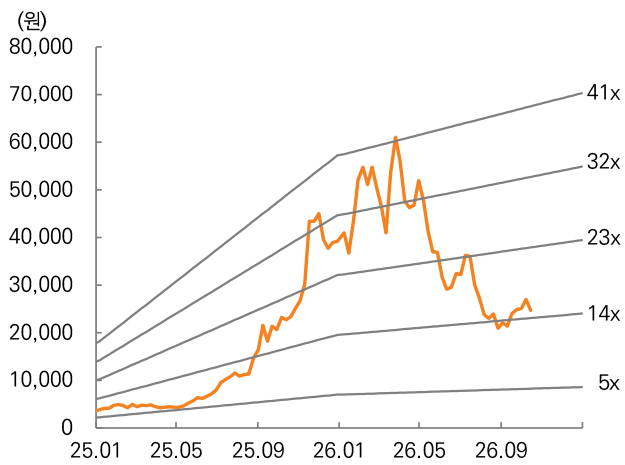
규제산업이자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기기 산업에서 M&A는 해외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전략 중 하나. 현재 국내 사업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구체적인 시너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투자대상과 투자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복안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이번 CB는 무이자, 20% 할증발행, 리픽싱 부재, 발행금액의 50% 콜옵션 설정 등 발행사에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었음. 다시 말하면, 이번 CB 발행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동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

동사의 주가는 지난 3월말 12개월 선행 P/E 41배를 기록하였으나, 2Q26 시장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13배 수준까지 하락한 바 있음. CB 전환가격 기준 밸류에이션은 19배 수준. 참고로 10월 13일 종가 기준 밸류에이션은 P/E 15배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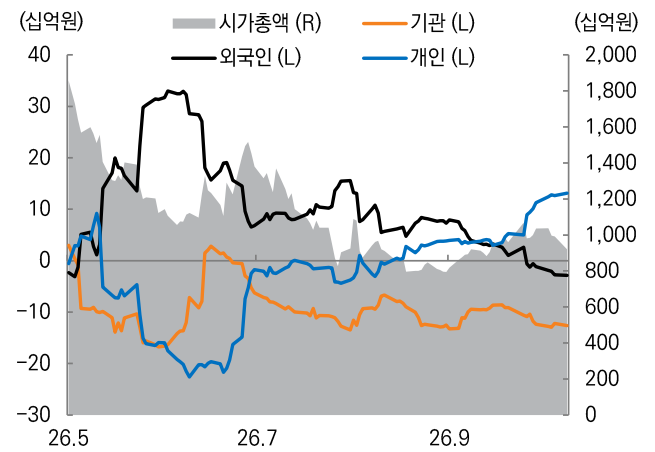
이번 CB 발행을 통해 동사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다시금 시장에 환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그림 1. 12개월 선행 P/E 밴드 차트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투자자별 순매수량 vs. 시가총액 추이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씨어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